

哲學과 知性

-哲學精神의 再建을 爲하야- (六)

金午星

여기서 파토스와 로고스의 統一이 要求되는 것이다. 한테 今日의 파토스가 要求하는 知性(로고스)이 市民的 知性이 아님은 勿論이다. 市民的 知性은 今日의 時代的 파토스의 論理가 되기는 姑捨하고 市民社會 自體도 說明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파토스와 知性과의 統一은 한편으로 時代的 意識으로서의 파토스를 歷史的 意識에까지 昂揚시키는 同時에 또 知性 自身을 論理의 □□로부터 解放시켜 時代의 論理, 歷史의 理論에로 變容시키지 안흐면 안되는 것이다. 知性은 파토스와 統一함으로서 그 自身の 根源에 돌아가 自己를 再建해야 할 것이다.

둘째, 知性은 直觀과 統一되지 안흐면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直觀은 베르손의 “純粹直觀”과 같은 어떤 哲學者의 眼目에서 빚어내인 知性을 넘어선 哲學的 直觀이 아니고, 그 時代의 生活□, □의 生直觀, 活□□에서 생겨지는 世界 즉 世界觀을 이룸이다.

그 어느 時代의 世界觀은 어느 哲學者의 勞作을 기다리지 안코도 그 時代의 사람들의 生活□□을 通하여 □然에게 成立되는 것이다. 哲學은 意識的, 或은 無意識으로 이러한 素朴한 世界觀을 基礎로 하고 일러지는 것이니, 우리가 베-콘[베이컨]을 近代 初期를 代表하는 時代의 哲學者라고 보는 것은 그가 무엇보다 當時의 市民層의 世界觀을 가장 充實히 表現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時代의 完□과 함께 哲學은 차츰 世界觀으로부터 離脫하게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들 時代의 主人公들의 生活□□의 變化와 다른 한편으로는 哲學의 自己充實에서 오는 것이다. 近代社會의 主人公인 市民層의 生活은 □氣, □□, □□ 등을 發見하던 初期의 實□的 生活에서 차츰 벗어나 오직 企劃과 計算에 依하여 利潤을 獲得하는 觀想的인 生活에 옮겨오게 되었다. 觀想的인 生活은 觀慾的인 直觀, 즉 觀想的 世界觀을 빚어내게 된다. 이리하

야 自己 論理에 □□하려는 哲學은 차츰 □初의 實□적 世界觀을 버리고, 觀念的(企□的)으로 世界를 構成하며 生産하는 哲學的 世界觀을 빚어내는 것이다. 哲學 上의 直觀은 正히 이러한 觀念的으로 □作한 直觀이다. 그러나 우리는 企劃의 過剩이 知性的 混亂을 招致하였음을 보아왔다. 그러므로 今日 知성이 結着하려는 直觀은 그러한 哲學的인 直觀이 아니고, 이 時代의 實踐的 生活者들의 生活□□이 나아 노흔 世界直觀 즉 實踐的 世界觀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時代의 世界觀은 그實 素朴한 것이다. 그러므로 世界觀은 知性和 結着하므로만 自己를 한 개의 論理에까지 出□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今日의 知성은 또한 時代의 世界觀과 結着하므로서만 單純한 論理의 □□에서 버서나서 한 개의 世界觀의 理論으로서 自己를 再建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知성은 다시 現實과의 統一을 回復하지 안하면 안된다. 知성이란 “알고 싶은” 人間의 本性을 이름이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무엇보담 自己 및 自己 周圍에 있는 現實일 것이다. 自己가 日常的으로 接觸하고, 自己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現實, 그것이 “알고 싶다”는 知性的 對象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哲學은 本來 對象, 즉 現實이 없이 생겨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現實을 理解하며 發展시키며 再建하려는 데서 哲學이 必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哲學은 그것이 차츰 哲學者란 一定한 □□□을 나아 노차 그리고 又□□□이 오직 講壇을 自己의 世界로 하게 되자, 講壇哲學은 現實을 떠나게 되었으며 對象을 버리고 오직 論理의 遊戲만을 일삼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知성이 論理의 遊戲에서 벗어나려면 哲學은 講壇을 벗어나지 안하면 안된다. 그리하여 市井에서 日常世界 속에서 自己의 對象을 찾지 안하면 안된다. 勿論 講壇이 論理의 鍊磨을 위해 必要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講壇에서 鍊磨된 論理는 그것이 講壇의 論理에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現實의 論理, 日常世界の 論理가 되지 안하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知性的 再建哲學의 再建은 무엇보담 講壇의 解放, 學派的인 講壇哲學의 超克이 없이는 不可能할 것이다. 그리하여 知성이 現實의 論理, 生活의 論理, 實踐의 論理로서 自己를 再建하지 안코는 知性的 危機는 超克할 수 없는 것이다.

知性 擁護는 知性 再建이 없이 생각할 수 없으며, 知性的 再建은 知성이 自己의 根源으로 돌아가서 自己가 素朴하였던 非知的인 파토스, 直觀, 現實과 統一하지 안코는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벌서 立場의 超越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知性的 擁護는 市民的 立場을 超克하지

안코는 바랄 수 없는 일이다.

知性の 擁護는 哲學의 □□이며 哲學精神의 再建을 意味한다. 哲學은 다시 知性を 擁護하며 再建하지 안코는 今日의 危機를 超脫할 수 없는 것이다. 知性を 生命으로 하는 哲學이 다시 知性を 要求해 마지안는 今日을 우리는 슬어해야 울힐 것인가? 기뻐해야 울힐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러한 現象을 哲學 再建에의 모멘트로 알었으면 그 뿐일 것이다.